

주요 내용

1. [청년 삶 실태 조사]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 지난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져!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3 여름 휴가 계획 및 여행 인식

2) 2024 최저임금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 지난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져!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만 19~34세 청년 가구를 포함하는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 최초 청년 대상 국가 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청년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청년의 삶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르익지 못했다. 청년 10명 중 7명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정신적 무기력으로 인한 탈진) 경험이 있었다. 향후 결혼 계획은 30대 초반 청년의 43%만이 있다고 응답해 청년의 어려운 삶과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회의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개신교 20대 청년의 절반가량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번 <넘버즈 201호>에서는 청년 삶 실태를 골고루 살펴보는 한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도 짚어보았다. 국가와 교회의 근간이자 일꾼인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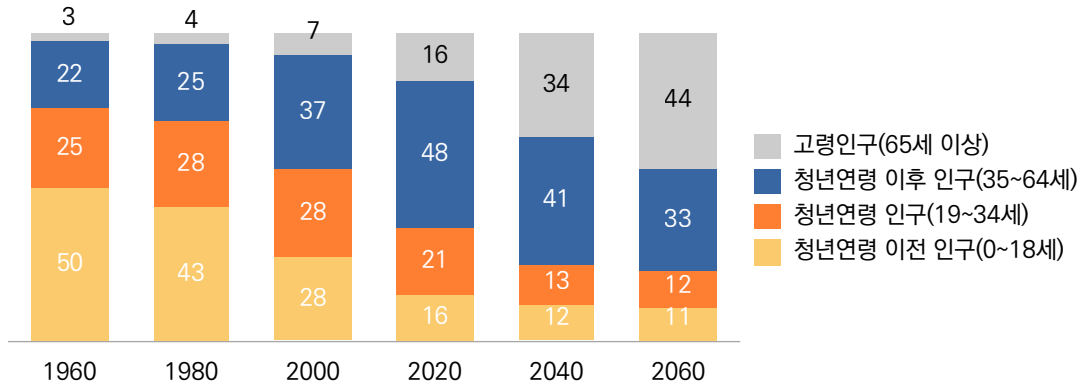
01

[청년 일반 특성]

청년인구, 2020년 이후 급격한 감소 예상!

- ▶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19~34세 청년인구는 총 9,377,973명이며 총인구의 약 20% 정도인데 이는 점차 줄어듦 전망이다. 전 연령대 중 청년 인구 비율이 1960년 25%에서 1980년과 2000년에는 각각 28%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은 21%, 2040년 13%로 2020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60년엔 전체 인구 8명 중 1명만 '청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추이 (1960~20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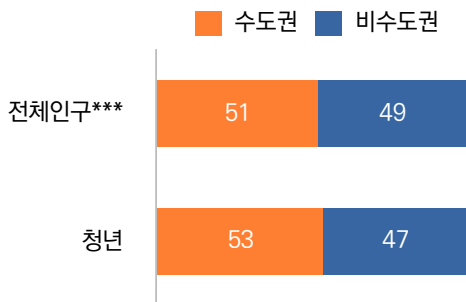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2021.12. (1960~2067년 매세별추계인구를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 정의에 따라 재배열하여 작성.

**원자료 : 통계청(2019. 3. 28.), 장래인구추계, 1960~2067(2017~2067년은 중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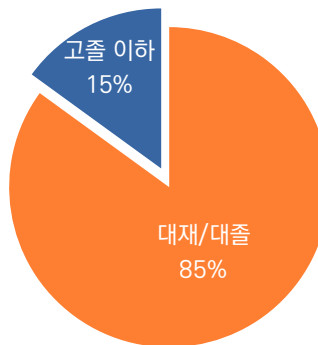
◎ 수도권 거주 청년 비율, 일반국민보다 약간 높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이상(53%)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수도권 거주 비율(5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 ▶ 대학교 재학 중이나 대졸 이상 학력이 85%로 대다수가 고학력자이며, 미혼 상태인 경우가 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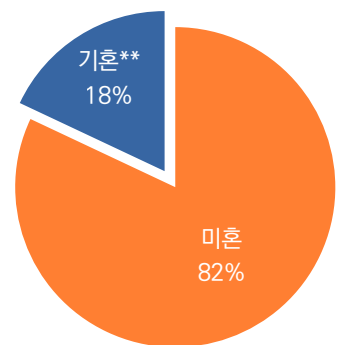
[그림] 거주지 (%)



[그림] 학력



[그림] 혼인 상태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이혼, 별거, 사별 포함

***통계청, '2020년 수도권 유동인구 분석' 보도자료, 2021.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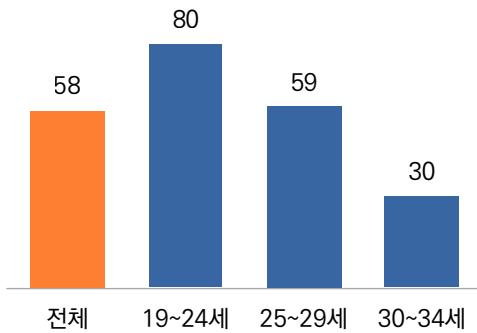
02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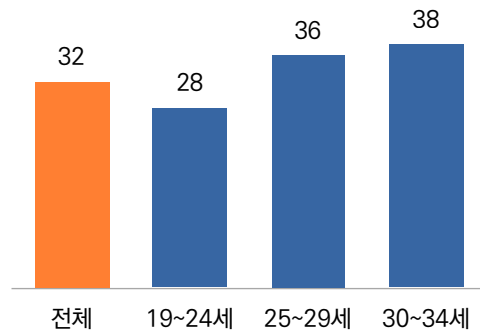
청년 10명 중 7명, 부모로부터 독립할 생각 없어!

- ▶ 청년들의 주거환경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년 10명 중 6명(58%)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 동거 비율이 높았다.
-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32%로 비교적 저조했다. 나머지 70%가량은 독립 계획조차 없는 셈이다.

[그림] 부모 동거 비율 (%)



[그림]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있음 여부 (부모 동거자, %)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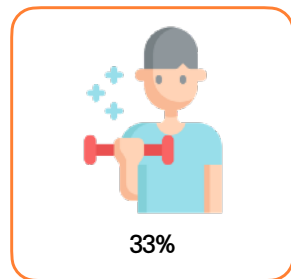
03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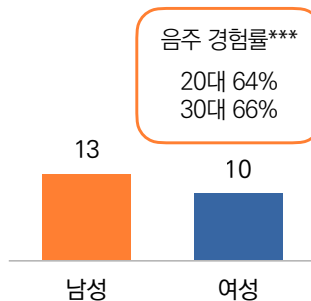
남성 청년 3명 중 1명, 흡연자!

- ▶ 청년들의 건강 실태는 어떠할까? 먼저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3명 중 1명만 '그렇다'고 응답해 운동 실천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음주율은 64~66% 정도인데, 이번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음주자 10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 음주자(1회 평균 음주량이 5~7잔 이상, 주 2회 이상)로 나타났다.
- ▶ 현재 청년들의 흡연율은 남성 33%, 여성 6%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정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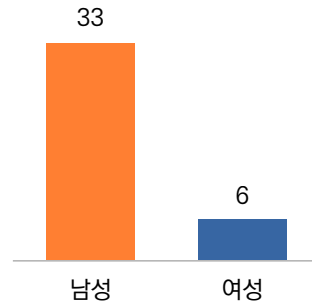
[그림] 운동 실천율
(주 3회 이상 규칙적 운동)



[그림]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자, %)



[그림] 현재 흡연율
(매일+가끔 피우는 비율, %)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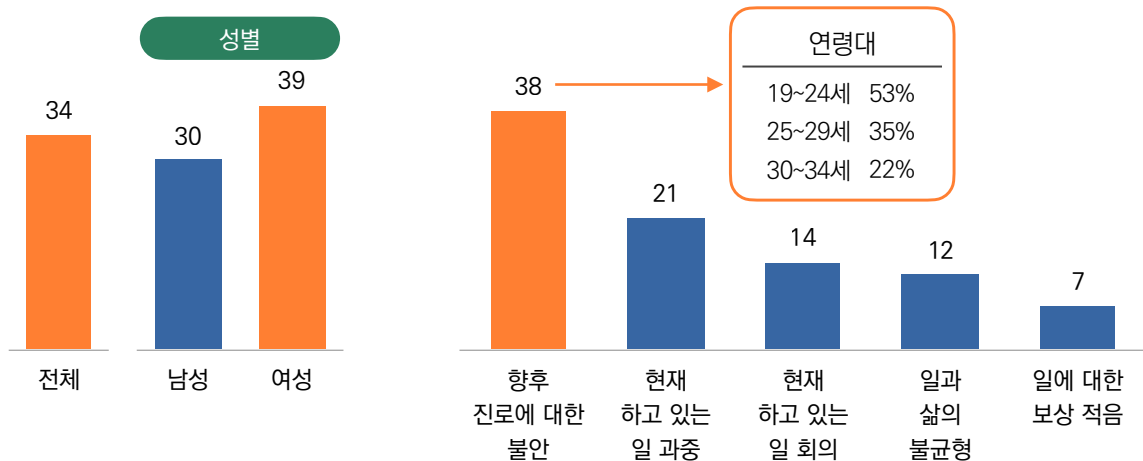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2023.03.23. 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자

◎ 청년 번아웃,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

- ▶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정신적 무기력으로 인한 탈진)을 묻은 결과, 청년 3명 중 1명(34%)이 번아웃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번아웃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 청년들의 번아웃 경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이 38%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 2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아닌 진로에 대한 불안이 청년 번아웃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초반의 경우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응답률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느끼는 취업에 대한 압박 및 부담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번아웃 경험률 (최근 1년 기준, %)

[그림] 번아웃 경험 이유 (번아웃 경험자, 상위 5위, %)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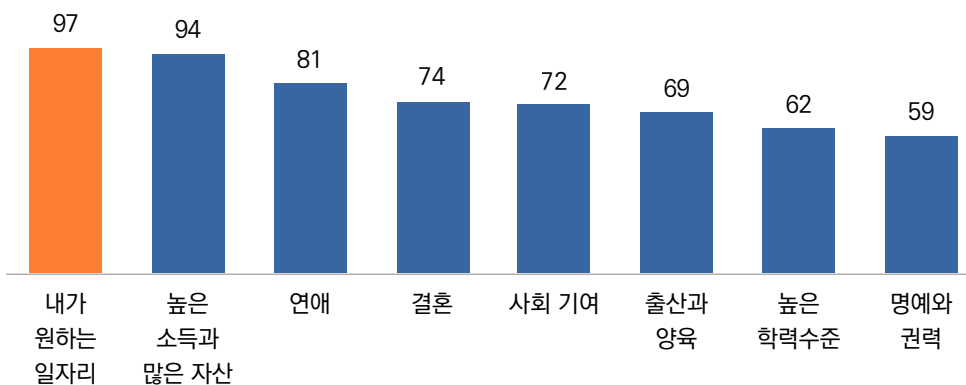
04

[사회 인식]

청년, ‘연애/결혼’보다 ‘돈/일자리’가 더 중요!

- ▶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미래 삶의 요소는 무엇일까? 각 삶의 요소별로 중요 여부를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97%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94%, ‘연애’ 81%, ‘결혼’ 74% 등의 순이었다.
- ▶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소득/자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연애’, ‘결혼’, ‘출산’ 등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물질과 돈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삶의 요소별 중요도 인식 (‘매우+중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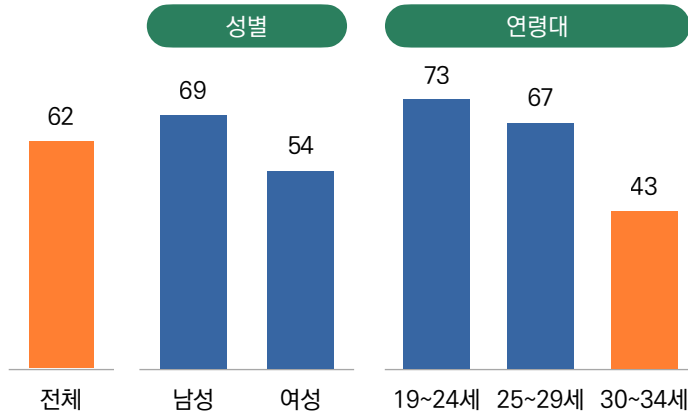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4점 척도임

◎ 30대 초반 청년의 절반 이상, 결혼 의향 없어!

- ▶ 청년들에게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62%가 결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초반으로 가면 '결혼 계획 있음' 비율이 43%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결혼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림] 향후 결혼 의향 (미혼자,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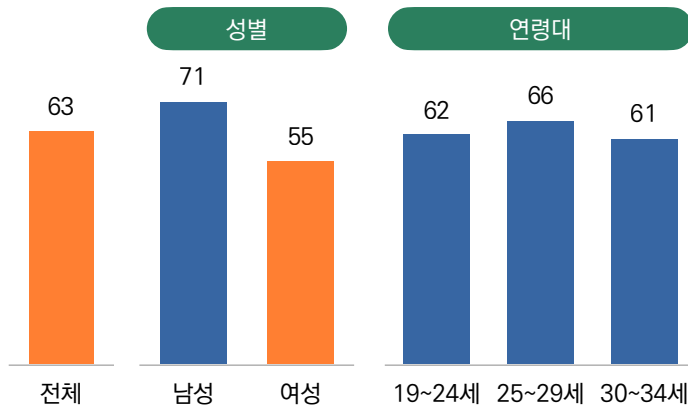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 청년 여성 55%만이 출산 의향 있어!

- ▶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이 71%인 것에 반해 여성은 55%로 남성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남녀 인식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 ▶ 여성의 결혼, 출산 의향률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할 여성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의미여서 우리나라 결혼, 출산율 문제 해결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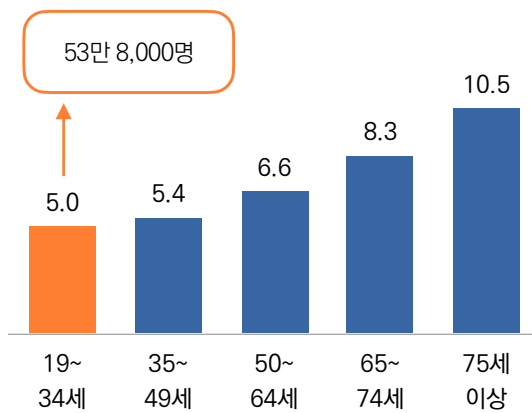
[그림] 향후 출산 의향 ('있다' 비율, %)



*자료 출처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 (전국 19~34세가 속한 14,966가구와 조사 대상 청년, 면접조사, 2022.7.18.~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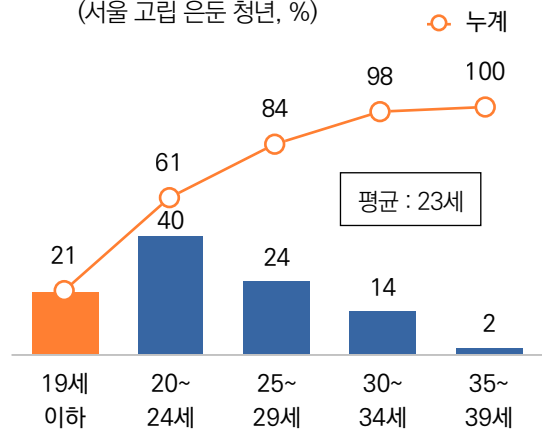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는데, 그 주요 결과를 살펴 보겠다. 청년의 '고립상태'는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조사 결과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1년 기준 5.0%로 100명당 5명꼴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청년인구(1077만 6000명)에 적용하면 고립 청년 수는 53만 8000명에 달한다.
- ▶ 이런 '고립(정서적/물리적)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를 서울 고립·은둔 청년 대상으로 물었더니 24세 이전 즉 20대 초반 이전이라는 응답이 전체 61%였고, 20대 후반까지로 보면 84%로 고립·은둔 청년 대부분은 30세가 되기 전 고립이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립이 시작되는 시기는 평균 23세로 조사됐다.

[그림] 연령대별 고립 인구 비율 (2021, %)



*자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정서적·물질적으로 고립 최초 시작 시기 (서울 고립·은둔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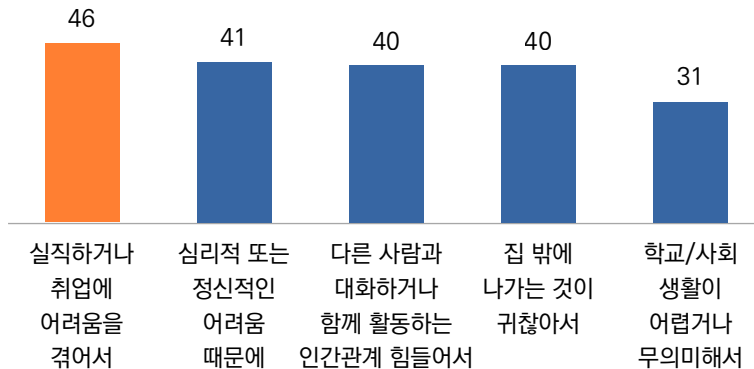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2.12.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5000명, 온라인 조사)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고립·은둔 계기, 절반 가까이는 '실직과 취업 어려움' 때문!

- ▶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된 계기를 묻은 결과,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가 절반 가까이(46%)로 가장 많았다.
- ▶ 청년들의 실직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고립·은둔 생활 시작 계기 (서울 고립·은둔 청년, 상위 5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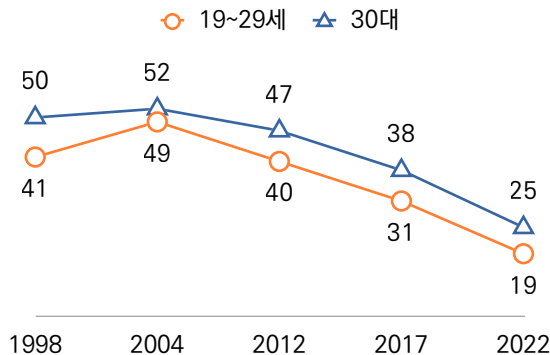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2.12.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5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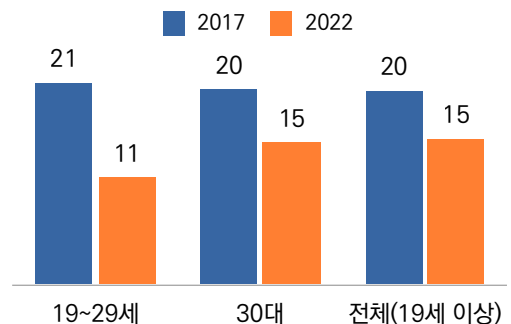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 지난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져!

- ▶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출판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06.) 내 종교인구 및 개신교인 비율을 살펴본다. 여기서 종교인구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 종교인구는 조사시점 기준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인데 2030세대의 종교인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하락 폭이 높아 1998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개신교인 비율만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9~29세 11%, 30대 15%로 20대의 경우 5년 전 조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종교인구 변화 추이 (2030세대, %)



[그림] 개신교인 비율 변화 추이 (2030세대, 2017 vs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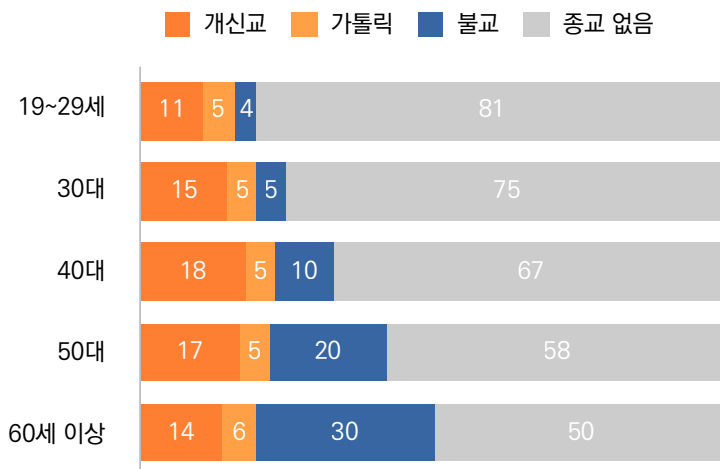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42~51쪽 (2022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전국 9,182명, 한국갤럽)

◎ 2030세대 종교인 중 개신교 점유율 60%!

- ▶ 연령별 종교 분포(2022년)를 살펴보면, 2030 청년세대 개신교인의 비율은 같은 연령대 종교인 중에서 각각 58%와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세대로 갈수록 개신교가 한국종교의 주도적인 종교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사상/가치관으로 무장된 교회학교 학생, 청년세대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림] 연령별 종교 분포 (2022, %)



종교인구 중 개신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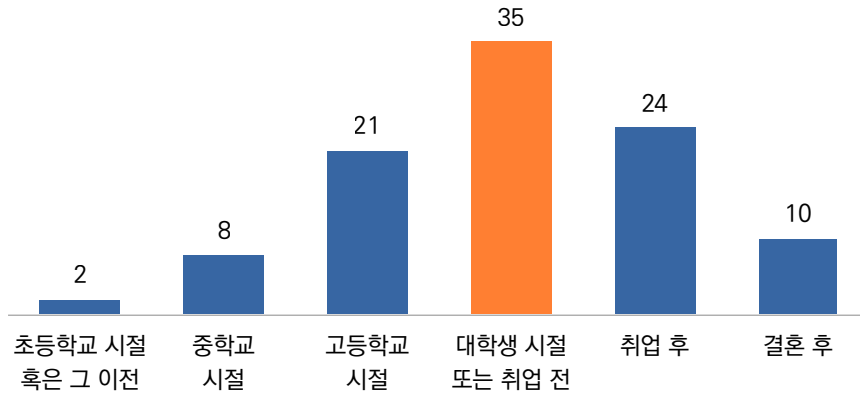
19~29세	58%
30대	60%
40대	54%
50대	41%
60세 이상	28%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42~51쪽 (2022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전국 9,182명, 한국갤럽)

◎ 2030 가나안 청년, 대학 시절/취업 전에 교회 이탈률 가장 높아!

- ▶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2030세대'는 언제부터 교회를 떠났을까? 2021년 '기독교 청년 신앙의식' 보고서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31%)은 이미 청소년부(~고등학교까지) 시절 안에 교회를 떠났고, 대학생 시절 또는 취업 전이 35%로, 대학진학 후 취업전 시기에 교회 이탈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취업 전까지 교회 출석하던 청년 3명 중 2명이 가나안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림] 2030 가나안 청년의 교회 불출석 시기 (%)



*자료 출처 : 기독교 청년 신앙의식 조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2021.01.
(만 19~39세 개신교인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1.5.)

지난 넘버즈 200호 구독자 조사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물었더니 가장 많이 응답한 2가지는 ‘다음 세대’와 ‘MZ 세대’였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 관한 이슈는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번 넘버즈에서 주요 인용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결과 전반에서 청년의 위기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년 10명 중 6명(58%)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32%로 비교적 저조했는데 주된 이유는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취업 문제로 야기된 청년의 경제적 미독립은 이들의 가치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삶의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97%)’와 ‘높은 소득과 자산(94%)’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연애’, ‘결혼’, ‘출산’ 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물질적 배금주의 인식은 개신교인 청년도 다르지 않은데, ‘기독교 청년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¹⁾에서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가 가치가 된 사회이다’에 대한 동의율이 92% 나온 결과와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인식은 결혼 의향률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 문제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의 결혼의향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는데 청년 전체의 결혼 의향률은 62%이지만 30대 초반의 결혼 의향은 비율이 43%까지 떨어진다. 2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청년의 불안한 상황은 번아웃 문제로도 이어진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정신적 무기력으로 인한 탈진)을 묻은 결과, 청년 3명 중 1명(34%)이 번아웃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번아웃 경험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이 38%로 가장 높았는데 19~24세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청년의 종교 인구를 목회적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인구의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 2030세대의 하락 속도는 더 가파르며 2022년 20대 개신교인의 비율(11%)은 5년 전 조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2030세대 종교인만을 두고 봤을 때 개신교의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개신교 인구는 줄지만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한 사람의 기독교 청년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의 이러한 고단한 삶을 마주한 기성세대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사랑과 정의의 가치관을 전해야 한다. 청년이 만나고 접하는 기성세대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돈으로 자신만 배부른 인생이 아닌 물질로 교회와 이웃과 청년을 살리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보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이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동원되는 인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가 자신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권한을 줄 때는 아이로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앞에서 교회 내 20대 청년이 5년 사이에 절반이 떨어졌다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청년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환상(Vision)을 볼 수 있을 때 한국 교회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1)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 2021.1.11. (전국 19~3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1.[2023 여름 휴가 계획 및 여행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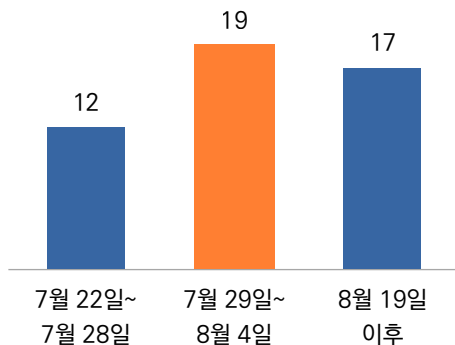
2.[2024 최저임금]



올해 한국인의 여름 휴가, 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에 가장 많이 떠나!

- ▶ 휴가철이 돌아왔다.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올 하반기 여행계획을 살펴본다.
- ▶ 최근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휴가 교통수요를 발표했는데, 올해 여름휴가 출발 예정일로는 '7월 29일~8월 4일'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8월 19일 이후', '7월 22일~28일' 순이었다.

[그림] 올해 여름휴가 출발 예정일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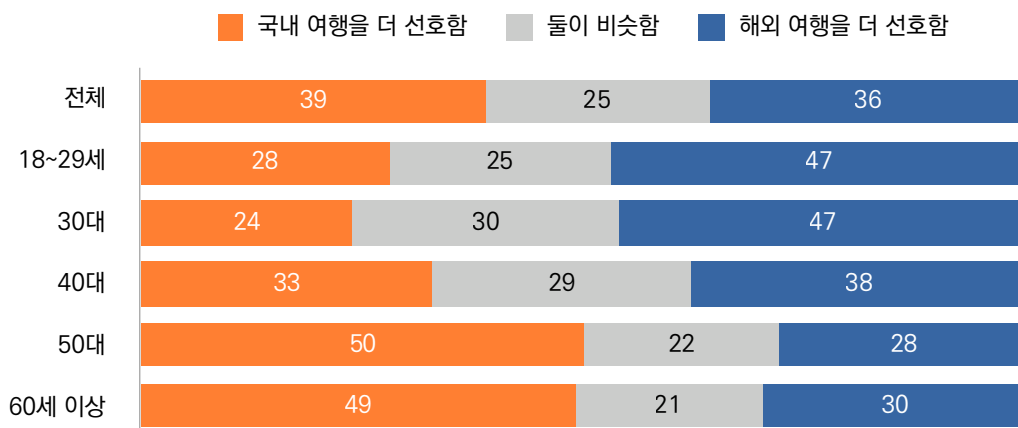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름휴가 교통수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3.07.23. (국민 1만 명 대상)

◎ 젊은이는 해외 여행 vs 장노년은 국내 여행 선호!

- ▶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물었더니, '국내 여행 더 선호' 39%, '해외 여행 더 선호' 36%로 거의 비슷하게 응답했다.
- ▶ 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해외 여행을 선호했고,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경우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국내 여행 vs 해외 여행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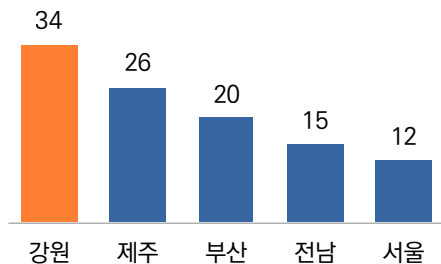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년 하반기 여행계획 및 국내·외 여행에 대한 인식 비교, 2023.07.1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07. ~ 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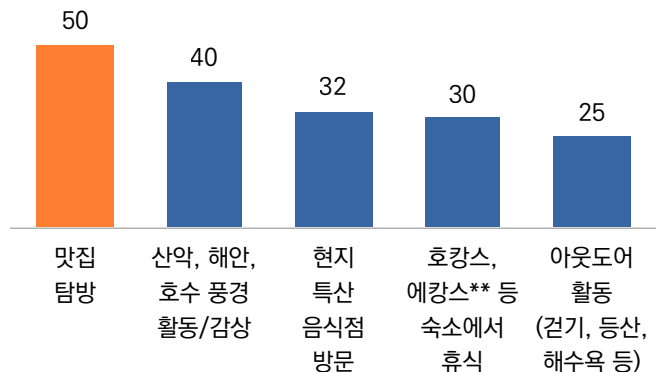
◎ 국내 휴가 계획자 3명 중 1명, 올해 휴가는 ‘강원도’!

- ▶ 국내 휴가 계획 지역(복수응답)으로는 ‘강원’(34%)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26%), ‘부산’(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위로 꼽힌 점이 주목된다.
- ▶ 국내 여행지에서 무엇을 할 예정인지를 묻은 결과(복수응답), ‘맛집 탐방’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산악, 해안, 호수 풍경 활동/감상’ 40%, ‘현지 특산 음식점 방문’ 32%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가 활동은 주로 먹거리를 즐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림] 계획하고 있는 국내 휴가 여행지
(올해 하반기 국내 휴가 여행 계획 있는 자, 복수응답, 상위 5위, %)



[그림] 국내 휴가 여행지 활동 계획 (올해 하반기 국내 휴가 여행 계획 있는 자,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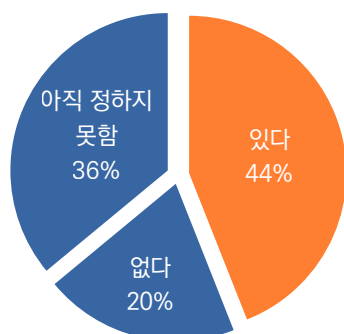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년 하반기 여행계획 및 국내·외 여행에 대한 인식 비교, 2023.07.1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07.~06.12)

**용어 설명 : 호캉스(호텔+바캉스), 에캉스(에어비앤비+바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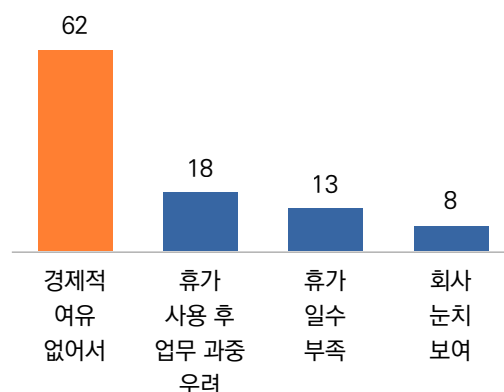
◎ 직장인의 휴가 계획 없는 이유,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유 없어’!

- ▶ 모든 직장인이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직장인 휴가 계획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44%에 불과했다. 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 없어서’가 64%로 다른 이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2023 여름휴가 계획 (직장인)



[그림] 여름휴가 계획하지 못한 이유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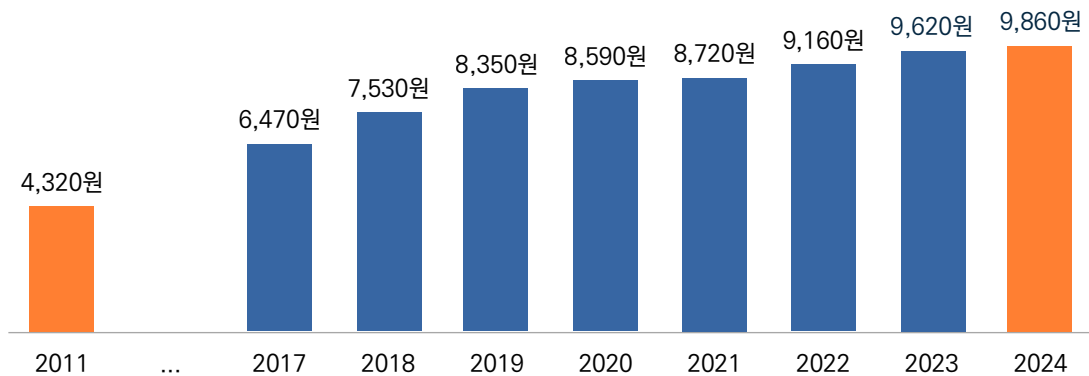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직장인 여름휴가 설문, 2023.07.23.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5. 엠브레인퍼블릭)



2024년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2024)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 12년 전인 2011년 4,320원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21년 8,720원, 2023년 현재 9,620원이다.
- ▶ 2017~2018년 사이 16%로 가장 인상률이 높은 반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다.

[그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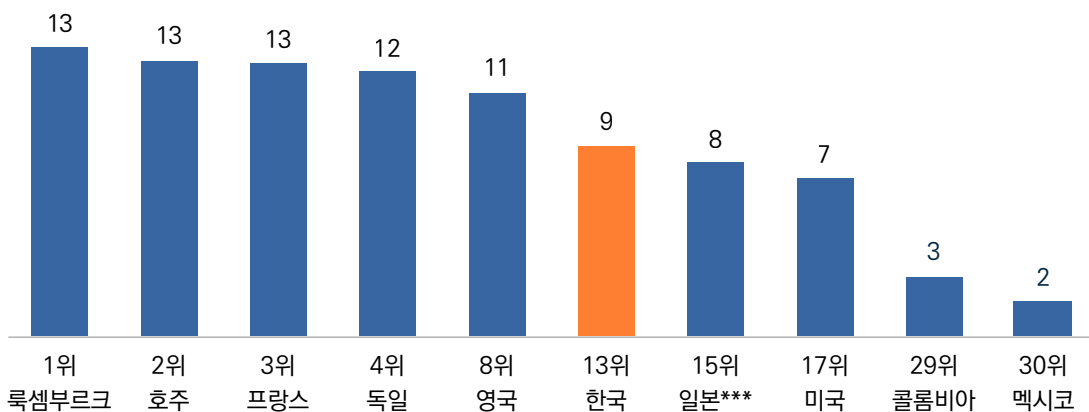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 참조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ref=timesnext>)

◎ 한국의 최저임금, OECD 30개국과 비교해 13위 수준!

- ▶ 그럼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일까? OECD에 등록된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USD로 환산한 수치로 절대적인 금액이 아님에 유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30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OECD 주요국의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 (2021, US달러)



*자료 출처 : OECD 통계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각국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공통 통화 단위(USD)로 변환한 수치

***2020년 기준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51호 \(2023년 7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1호 \(2023년 7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통일 인식 등

◎ 사회 일반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성인 56%, 긍정적 '8년 만에 최저'](#)

연합뉴스_2023.07.22.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

연합뉴스_2023.07.19.

[국민 47.7%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손 부족"](#)

연합뉴스_2023.07.12.

[방사선 피폭 가장 많은 검사는 MRI?...국민 80%는 '오답'](#)

연합뉴스_2023.06.27.

[일하는 운명 '마쳐세대' 60대... 육아·가사보다 취업 여성 많아](#)

중앙일보_2023.07.16.

◎ 청년 / 청소년

[작년 초등생 11명 극단선택...5년전보다 266% 늘었다](#)

중앙일보_2023.07.17.

[지난해 학폭 피해응답률 1.6%...피해 고교생 32% "거의 매일"](#)

연합뉴스_2023.07.17.

[살 빼기 집착, 음식 극도 경계... 10대 이하 거식증 환자 급증](#)

국민일보_2023.07.17.

◎ 경제 / 기업

[한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 막고 자산불평등 키워"](#)

연합뉴스_2023.07.17.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서울 40대 직장인 34%만 "그렇다"](#)

연합뉴스_2023.07.13.

["돈도 없는데 무슨"...휴가 포기 직장인 62% "경제적 사정"](#)

연합뉴스_2023.07.20.

[늘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 53.7세 예측](#)

연합뉴스_2023.07.2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소 수출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재의 1.6배로 늘려야"](#)

연합뉴스_2023.07.17.

[채용·업무분장 등에 학벌 영향력?...직장인 절반 이상 "있다"](#)

연합뉴스_2023.07.20.

["그래, 나 곧대 맞아"..직장인 10명 중 3명 스스로를 곧대 '인정'](#)

파이낸셜뉴스_2023.07.21.

[‘정년’ 없는 시대... 일하는 80대 ‘옥토테너리언’이 온다](#)

조선일보_2023.07.21.

[구글 직원들 “회사가 학교냐” 화난 이유](#)

조선일보_2023.07.15.

◎ 건강

[친구 없이 보내는 노년, 뇌 스캔해 보니 ‘이것’ 달랐다](#)

조선일보_2023.07.14.

[성인은 아메리카노로 당 주고...여자 청소년 절반, 과자로 과다 섭취](#)

조선일보_2023.07.18.

[수명 연장하는 8가지 생활습관..."모두 지키면 24년 장수 효과"](#)

연합뉴스_2023.07.25.

◎ 국제

[세계 6위 수출대국 南, 아직도 가발 파는 北...체제 선택이 가른 운명](#)

조선일보_2023.07.2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日여성 반대 49% vs 남성 찬성 65%"](#)

연합뉴스_2023.07.17.

['이혼휴가'도 보낸다..."387조 손실 볼 바엔" 英·美기업 파격복지](#)

중앙일보_2023.07.15.

[좀비 사진 찍고 잔반 도시락 먹는다...中청년들 섬뜩한 경고](#)

중앙일보_2023.07.11.

◎ 기독교 / 종교

[목회자 49%, “은퇴 연령 이전에 마치고 싶다”](#)

기독교연합신문_2023.07.05.

[봉사 안하는 성도 10명 중 6명 “기회되면...”](#)

더미션(국민일보)_2023.07.1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크리스찬타임스_2023.07.20.](#)

[“하나님 있다” 응답 2001년 90%→ 2023년 74%로 ‘뚝’… 미국인들 종교적 믿음 역대 최저 찍어](#)

[더미션\(국민일보\)_2023.07.24.](#)

[교회에 “올인”하는 다섯 가지 이유](#)

[크리스찬타임스_2023.07.19.](#)

[몽골 목회자 절반 “한국 선교사 이양단계다”](#)

[기독신문_2023.07.13.](#)

◎ 기획기사 :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 복음이 간다], (더미션 ‘국민일보’)

[① 선교 대상 20만명 눈앞에… “이 땅서 한국어로 복음 전할 기회”_2023.07.04.](#)

[② 아시아권 학생엔 거처·식사 제공… 니즈를 채워라 _2023.07.05.](#)

[③ 인종차별·동정심에 멎은 유학생… ‘환대’로 마음 열자 _2023.07.06.](#)

[④ 유학생들은 외로워… ‘관계 사역’ 통해 필요 채우자 _2023.07.10.](#)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할렐루야교회(담임목사 김승욱), 삼덕교회(담임목사 강영룡)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마성대

| 연구소 소식 1 |

휴간 안내

다음주(8월 1일)는 여름 휴가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

| 연구소 소식 2 |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 최초로 '이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3. 주요 내용
 - 1)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2) 조사 결과의 의의 및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방안
4.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02-322-0726)

| 연구소 소식 3 |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넘버즈의 주요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 www.instagram.com/mok_data

